

작가를 꽁꽁 묶어도 작품은 날아왔다

베니스 비엔날레 모례 개막
中 아이웨이웨이 新作 전시도

“비엔날레가 지
루하지 않으면서도
교육적일 수 있음을
보여주겠다.”

‘총성 없는 문화 전쟁’ 베니스 비
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마시밀리아노
지오니(Gioni·40)의 일성(一聲)이
다.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6월 1
일(현지 시각) 개막한다. 2010년 광
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기도 한 지

오니 총감독이 내세운 주제는 ‘백과
사전식 전당(The Encyclopedic
Palace)’. 1950년대 미래주의자들
이 세우려 했던 ‘세상의 모든 지식이
담긴 마천루’에서 유래했다.

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총감독이
선정한 작가들 작품으로 꾸며지는
본(本)전시, 각국이 대표 선수들을
내보내는 국가관(國家館) 전시, 부
대행사로 나뉜다. 19세기 조선소 자
리인 아스날레에서 열리는 올해 본
전시엔 38개국에서 작가 158명이 참
여한다. 미국 사진가 신디 셔먼

(Sherman·59)이 선보일 기이한 인
형의 집이 가장 기대되는 볼거리 중
하나. 올해 본전시에 참가하는 우리
나라 작가는 없다. ‘자르디니(정
원)’는 88개국이 참여하는 국가관.
한국 작가로는 김수자(56)가 ‘출전’
하고, 올해엔 바티칸 시국이 처음 국
가관을 선보인다.

부대행사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
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(艾
未未·56)의 전시. 2011년 중국 공안
에 의해 81일간 불법 구금됐던 작가
는 당시의 상황을 실물 절반 크기 디
오라마(diorama·입체 모형)로 재현
했다. 아이웨이웨이는 이번 비엔날레
독일관 그룹전에도 쓰촨성 대지진을



로이터 뉴시스
다음 달 1일 개막을 앞둔 2013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 국가관에서 한 관람객이 영국 작가 제레미 델러의 설치 작품 ‘샌드링엄 이스테이트, 노포크, UK’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.

주제로 한 작품을 내놓는다.

1895년 처음 시작한 베니스 비엔
날레는 120여개에 달하는 국제 미술
행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.
개막 직전 수여되는 공로상인 ‘평생

업적 부문 황금사자상’ 수상자엔 오
스트리아 화가 마리아 라스너(Lass-
nig·94)과 이탈리아 아르테 포베라
작가 마리사 메르츠(Merz·82)가 선
정됐다. 베니스=곽아람 기자